<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유재형		
면담자	조연희	면담지원자	이혜숙
면담일시	2026. 08. 04.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조연희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0:33)

안녕하세요. 유재형 선생님.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유수동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6년 8월 4일 화요일이고,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조연희가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구술 인터뷰 참여 계기 (00:00:34~00:03:02)

면담자: 문화원에서 동양화학 관련된 분들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제 먼저 이렇게 이 소식을 알고 연락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조금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구술자: 동양학에 제가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딛어가지고 거기서 사회 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 동양화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군에도 갔다 오고 그 후자에도 또 다시 재복무를 해가지고 쭉 건설 활동을 쭉 해왔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도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건설업계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동양하고 인연을 끊은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인터뷰하게 된 과정은 인천시에 근무했던 강봉기 씨라는 그 친구가 인품을 줬어요. 강봉기 인천시에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도 이제 시에 복무하기 전에는 누구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면담자: 그분이 보시고 이렇게 인터뷰해보면 좋겠다

구술자: 그 친구하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OCI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연락을 취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락

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3. 동양화학 제방 축조와 초기 공장 건설 현장 (00:03:03~00:18:04)

면담자: 지난 사전 면담 때 인천공고 졸업하시고 군 입대 전이 1968년에서 69년 사이에 이제 입사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해안가에 처음 이제 제방 쌓는 일에 투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주변 풍경이랑 지금과는 물론 더 많이 달랐겠지만 또 이제 공장이 세워지기 전에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 당시에는 제방 축조하는 것이 이제 동양화학에서 필요로 한 것은 땅도 필요하지만은 공업용수가 소요가 되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내나 이런 데는 그러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동양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입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방을 막는 것을 삼부토건에서 시행을 하던 것을 OCI에서 그걸 인수를 했어요. 이제 매립권을 이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삼부토건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방 축조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사항이 이제 부실하고 그러니까 OCI에서 인수해 가지고 삼부토건은 손을 떼고 직영 공사로 그러니까 제방을 처음에는 견치석이라고 하는 그 돌이 예쁜 돌이 있어요.

이제 네모 반듯한 돌로다가 해서 제방을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쁘게 해놨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제 파도가 쳐서 다시 딱 감아서 도로 떨어지게 했죠. 그랬는데 백중날인가 그 사리 때 그 제방의 일부가 유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OCI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석산까지 이제 확보를 해 가지고 석산을 발파를 해서 돌을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파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조그만 그 기관차에 그러니까 박스로 해가지고 조금만 협궤 레일에 디젤 기관차 조그마한에 실어서 날랐죠. 지렛대 같은 거로다가 해가지고 양쪽에서 붙들고 제끼면 그냥 그 학고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돌이 다 바다로 그냥 굴러 떨어지게 그냥 그런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그런 작업을 계속해 가지고 제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석공을 붙여가지고서 제방을 다시 쌓아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제방 상단 높이가 해수면에서 그 11.5m인가 11.5m 최대 물 바닷물 수위가 최대 올라오는 곳이 9m 80에요. 그런데 이제 한 12m 정도 제방 높이가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폭은 한 2m 50 정도 그렇게 해서 됐고 다시 안쪽으로다가 내제방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 한 20m 정도를 갖다가 내제방을 갖다가 축조를 이렇게 한 거죠. 그 중간에는 이제 수문들을 일단은 저수지 쪽은 취입수문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유입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면은 바깥의 수문은 수직으로 돼 있는 수문이고 그 안에 수문은 경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바깥의 수압에 의해서 이 수문이 들려요.
들리면 자동으로 물이 유입이 되어 쭉 들어갔다가 이제 물 빠질 때 되면 내수위에 의해서 들렸던 것이 다시 원상태대로 닫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이제 그것도 인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배수문으로 이제 학익동 일대 용현동 청학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있었잖아요. 대한전선하고 그 사이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쭉 나가서 중간에 배수문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낙섬쪽에 또 배수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금호아파트 뭐 이제 이렇게 다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제 낙섬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주거한 게 아니고 거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가 지명이 조개고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방을 막고 나니 바닷물이 저수지 외에는 공급이 되지 않아 바다 생물인 조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저수지 내부의 조개는 양호하게 번식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개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 저수지를 축조한 상태 그냥 양식처럼 누가 채취도 안 하니까 저절로 많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학익동에 있는 일대 주민들이 물 빠졌을 때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면 거의 바닥이 이렇게 나오다시피 해서 저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발 걷고 들어가 가서 조개를 채취를 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수지도 물 용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흙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 바닥을 일부 깊이 이렇게 또 파서 흙을 실어 나르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공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물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조개를 잡다 보면 거기 들어가면 그냥 빠져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있어서 조개 채취를 못 하게끔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네.
벌판에 울타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쪽에서 통제하면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한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면담 지원자: 펄이 그만큼 깊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펄을 파내느라고 파내서 이게 이제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제방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간에 그 펄을 채워 넣어요. 그러면 그게 다져지면 이 물이 들어와도 통과를 못해 그래서 그게 물이 통과를 하게 되면 바늘구멍 뭐 이렇게 되면 슬슬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제방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바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저도 이제 처음 입문해 가지고 그런 논리를 이제 담당 기장님하고 그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죠.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우지도 못해

면담자: 현장에서 배우는 거네요. 진짜

구술자: 그래서 제방 축조를 10만 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각으로 한 600m 600m씩 그 정도 돼요. 규모가 저수지 규모가 그래서 그것을 공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현관을 1m 1m 50짜리 흉관은 크죠.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흉관을 갖다가 그 콘크리트 흉관을 갖다가 거기서부터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공장까지 전부 파가지고 또 관을 매설을 해서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게끔 돼 있죠.

면담자: 공장을 지을 때 같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진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술자: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로 하니까 이 제방하고 막는 것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돼야만 확보가 돼서 물을 쓸 수가 있으니

면담자: 그럼 제방을 쌓으시면서도 동양화학이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보셨을 것 같아.

구술자: 그렇죠 공장 건설하는 것도 같이

면담자: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때 그 이야기도 해 주시면

구술자: 그 당시에는 거의 골조가 골조가 다 돼가지고 기계 설치가 이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공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기계들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하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면담자: 그게 68년 69년 그 사이 군대 가기 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때 뭐지 대우건설 김우주 회장님 시절에 이제 시공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방을 쌓으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구술자: 제방은 제방은 대우건설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삼부토건에서 이제 했던 거고 대우건설은 공장 건설하는데 투입이 돼 있던 거고요.

면담자: 네 그때 송도 석산에서 발파 작업할 때 좀 다치는 분도 계셨다고 하셨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일하다 보면 동료가 이렇게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건데 그때 좀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보다는 미흡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술자: 그리고 통제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보름마다 15일마다 작업량을 갖다가 카운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마감 때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이제 작업을 일과 중에 발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일몰 후에 그 발파를 해서 그런 사고가 유발이 된 거죠.

면담자: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좀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라든가

구술자: 현장 분위기는 심각했죠. 이제 관리자 인사는 일단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다 받고 거기에 불미스러운 거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부실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런 저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거나

면담자: 이게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을 준비 준비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냉각수를 조달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좀 혁신적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전기도 그 당시에는 용량이 공장에서 쓰는 용량이 인천시에서 지금 거는 변전소를 다시 설치해서 고압을 갖다가 이렇게 인입을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비용 들고 한전에다 전기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원가 면에서도 코스트 다운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냉각수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도 뭐 다 냉각수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각수가 이제 소요가 되고 또 일부는 그 공업용수로 속해서 하고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의 가족성의 거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그거를 또 이제 가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거고

4. 초대형 공장 OCI와 당시의 시대상 (00:18:05~00:25:23)

면담자: 토목 기술자셨잖아요.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런 혁신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 느끼시는 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좀 처음 보는 과정이었고 학교 도서 막 졸업해 가지고야 그런 상태를 봤으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관도 보면 아주 배관 파이프라인 파이프랙을 해가지고서 이제 배관이 쭉 가면 여기서 이리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또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한국 우리나라도 이 큰 발전을 공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제품 이제 소다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 생산한 것이 있죠.

면담자: 사실 진짜 실제로도 규모가 굉장히 컸고 웬만한 산단 규모 버금가는 크기였잖아요.

구술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룹 중에서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쌍용 또 뭐 이렇게 있는데 한진 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OCI 이회림 회장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병철 회장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공동에 본사가 있는데 그것이 8

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시승을 이승만 대통령이 시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하고 선에 OCI 본사 건물을 지금 25층짜리인가 이렇게 지어 있죠.

면담자: 뭔가 되게 이회림 회장님의 당시 그 영향력이 되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낄 수
구술자: 재력이 재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AID차관으로다가 이제 그 공장 건설을 한 거거든요. 일부는 자체 자금도 소요가 됐겠지만은 외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거고

면담자: 아까도 해안 제방을 쌓을 때 이제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하셨었는데 군인들도 막 들어와 가지고 겨울에 얼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구술자: 방을 양쪽에서 이렇게 낙서해서 이렇게 막아 오고 이쪽이 용현머리 옥련동 용현머리에서 막아 오는데 취입수문을 지나서 갯고랑이 있어요. 그 고랑은 물이 바닷물이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유입이 되는 건데 그 고랑이 막아놓게 되면 그 수압에 자꾸 쓸리니까 다리를 놨어 목재로다가 비계목이라고 그래서 옛날 그 비계목 아시바라고 하는 비계목을 갖다가 해서 다리를 한 25m 30m 정도를 다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기관차가 다니면서 그냥 돌을 뿌리고 나하고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 그냥 그 돌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밑에 돌 있던 거 하고 돌 떨어진 거 하고 해서 물 들어가면서 고기들이 찢겨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랬어 그만큼 어족 자원이 많았어요. 지금 같이 공해가 있어가지고서 어족자원이 고갈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고기가

면담자: 그러면은 그 물때를 맞춰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주워가려고 오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구술자: 못 들어가죠. 거기는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위에서 돌 떨어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통제를 하죠.

면담자: 어쨌거나 이제 뭔가 그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 좀 생각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구술자: 저수지 부근에는 마을이 없었어요. 마을이 없었고 석산만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조개고개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그 산기슭으로 역할이 조금 마을들이 형성이 돼 있었죠. 그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놓고 수인선 숲길이 또 쭉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그런 과정이었지

면담자: 업무가 끝나면 이제 조개고개에서 이렇게 뭔가 한 잔 걸치기도 하셨었다.
구술자: 그거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퇴근하고서 가기 바쁘니까 나가서 먹어도 나가서 먹

지 뭐 거기서

면담자: 조개고개에서는 안 드시고

구술자: 한 번 몇 번 먹은 적은 있지만은

면담자: 주로 어디 가서 드셨어요?

구술자: 홍어회 이제 거기 홍어회를 많이 했지

면담자: 그럼 나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구술자: 저기 동인천 쪽으로 이제 인천 나가서 먹게 된 거죠.

면담자: 배다리 뭐 이런 쪽으로

구술자: 그렇죠 동인천 신포동 쪽으로 이렇게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인천시 중심가였었으니

면담 지원자: 시청이 그때 거기 있었죠.

구술자: 시청이 이제 자유공원 밑에 거기 있었죠. 지금은 중구청

면담자: 그럼 약간 그 회식 문화도 그때 당시에도 회식 문화가 있었어

구술자: 그럼요 회식 문화가 있었죠. 다 지금과 같이 뭐 거의 비슷한 거지 뭐 회식이라는 게 직원들하고 가서 하는 그 회식이라는 게 고기나 먹고 이제 술을 해서 이렇게 한 잔도 먹고 그것이 그 회식 문화지 뭐 다른 건 없었지

면담자: 혹시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하고 연락하시는 분은

구술자: 따로 없어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 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 작고하고

5. 군 복무 시절과 OCI 복직, '새인천 유원지' 공사 (00:25:24~00:49:57)

구술자: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회림 회장이 그 자금이 달려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처했을 적에 이제 매립이 준공이 되면은 그 땅이 등기가 다 나요. 그러면 바다 바닥이라도 이게 다 등기가 나서 번지수가 다 먹여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각 은행에다가 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그 당시 서울신탁은행 등등 해가지고 시중은행에 안 잡힌 땅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면담자: 저당 잡혀

구술자: 그렇죠 담보 설정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매립지 땅이 재기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됐지 그래가지고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양반이 지금 검단에 쓰레기 매립장 거기가 거기가 1,350 정도니까 정보가 몇 평이더라 하여튼 1,350 정도 상당히 큰 사항인데 그 매립권을 인수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그걸 한다고 나는 이제 거의 이쪽 인천에서 일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저희하고 같이 했던 담당 우리 바로 후임 정장하고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게 OCI에서 그걸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유니온 백시멘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회림 회장 건데

면담자: 시멘트 이름이 어떻게

구술자: 유니온 백시멘트인데 거기 이제 칼라 시멘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시멘트가 나와가지고. 유니온 마크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OCI에서 따라서 이제 거기 가서 그거를 하기로 해서 이제 제방을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그 원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밀가루를 식량으로다가 준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공사하는 그 일꾼들한테 그걸 배달 배분해 가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빼돌려가지고 하여튼 그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냥 제방 뚝뚝 한 솜섬을 연결해서 한 거라 그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내가 갔을 적에는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배수문 설치부터 해서 전체 이제 막고 나면 내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배수문 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공사를 역임했죠.

바다를 섬 주변을 이렇게 일부 막아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수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지도 못하고 내가 군대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풍도 오고 해서 그냥 비가 와서 물을 푸고 나면 비가 와서 물이 잔뜩 차 있는 상태로 멀쩡한 날은 물 퍼내고 또 물퍼내서 일할 만하면 또 비가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업자들도 그냥 녹아떨어지고 뭐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자 나는 12월 2일 날 내가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전 군 입대를 해가지고선

면담자: 그게 1969년 12월

구술자: 70년

면담자: 1970년 12월

구술자: 69년도까지 이제 여기 OCI에 있고 OCI에서 넘어가 가지고 70년 12월까지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군대 간 건데 군대 가서도 어떻게 나는 요행이 고등학교 동창 3명이 같이 갔는데 이건 일단 에피소드이지만 3명이 가가지고 군번을 나란히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영연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한 사람이 낙오가 되면 기다렸다가 같이 해서 나란히 군번을 받았는데 포병 주특기를 받았어요.

내가 포병 주특기를 받았는데 이제 훈련이 끝나가지고 자대배치를 갔는데 동창들 두 명은 포병학교를 가고 나는 서울 수색 34단을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를 누가 이렇게 지원해 준 사람이 없을 텐데 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아버님을 13살 때 돌아가셔 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겠다 해서 했는데 누가 힘을 써줄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수색을 갔는지 그 뒷배경이 궁금했지. 그런데 내 상관이었던 분이 한신 장군하고 친구였었어. 그 당시 한신 장군은 유명한 장군이었어. 근데 아마 그 양반이 그 사이드로 해서 그렇게 됐나

면담자: 그 수색 30사단 부대 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구술자: 아니 수색 30사단 부대가 아니라 거기서 지명이 수색이

면담자: 서울에 있는 수색

구술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를 이제 포병 주특기를 받아서 포병 부대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그 30사단 주번 사령이 공병 참모가 했어요. 그래서 개별 면담 용지를 줘서 그걸 다 리스트업을 해서 올렸더니 포병으로 가야 될 사람이 내가 공병으로다가 픽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병에 가서도 이제 뭐 글씨 쓰는 거 또 해서 이렇게 각 참모들이 와가지고 보고서에 이제 신병 사람들을 픽업해 가려고 과별로 작전과 인사과 또 군수과 이렇게 있는데 서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다 쓰는 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전과로 가게 됐잖아. 근데 작전과는 공병작전은 공사예요. 그 아침에 이제 영선 중대라고 이제 작업 중대는 삽을 이렇게 삽을 주더니 앞으로 여기까지 해서 작업장부터가 출동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정 공사계 업무를 이제 사수가 있고 이제 이 밑에서 수고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양식이 내역서 양식이라든가 모든 양식이 있는데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니까 이 전지를 보급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을지로 나가가지고 그걸 A4 A4 용지 또는 전지 용지 이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니 갖다가 이제 프린터로다가 내역서 만들어서 가져간 긁어가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니까 무척 힘든 거예요. 일이 양식이 있으면 바로 그 리스트 써 나가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병인데 외주 공사가 있어요. 건설회사에서는 외주 공사가 있으면 경리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왔을 때 그 업체가 열몇 개 되면 열몇 개를 그걸 써서 그걸 줘야 돼요. 현장 설명할 적에

그러면 내역서 수량하고 그거 뭐 주지 종목하고 그거 주면 단가 금액은 그 사람들이 이제 써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열몇 부를 쓰려니까 그 당시에는 갱지 두 장씩 쓰는 거지 일곱 필씩 오면 굉장히 내가 그래서 필체가 슬슬슬슬 쓰는 게 아니라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 누르지 않으면 밑에는 나오지도 않아 그래 이제 그걸로 해서 그렇게 내줘야 되는데 그걸 거의 밤새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내무반에 들어가서 내무생활을 별로 하질 못해요. 그냥 안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수는 들어와서 지금 고참이니까 나한테 다 맡기고

면담자: 군대에서 습득하신 게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쓰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거 해가지고 하여튼 군은 하여튼 앞뒤 이게 다 절도점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든 검열 때도 그렇고 이제 이 공사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지휘 검열을 2군 지휘 검열을 받았는데 그 아주 1등을 했어요. 2군 내에서 그래가지고 사단장도 진급해서 가고 이렇게 공병 참모도 진급해서 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그때 이제 휴가를 나와 있는데 표창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보니까 상장이 있어 그게 사단장 상까지 내가 이제 공사 유공자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월남군 철수하고 하느라 군 막사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우리 사단에서 일부 병력이 오니까 막사를 짓는 것을 외주 공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 서 이 그래서 사단장 표창까지 가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미니 차드에서부터 큰 차드까지 차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역서 그것도 써야지 이 차를 미니 차드는 현장 설명할 적에 사단장이 있고 공병 참모가 사단장은 미니 차드를 보고 일반 입찰자들은 전 큰 차드에다가 쓴 거를 이제 보좌관이 이제 지휘봉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일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미니 차드 차들을 많이 썼어요.

면담 지원자: 똑같은 거를 쓰임새를 여러 개 쓰신 거
구술자: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면담 지원자: 그때는 군무대 몇 개월이었어요?
구술자: 내가 제대를 34개월 35개월 정도까지

면담자: 이제 전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최종명 공장장님의 주도하에 이제
구술자: 와가지고 또 이제 바로 복직이 안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또 추천이 돼가지고 인천제철 그때 이제 송요찬 장군이 이제 인천제철 사장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더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또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일하는 중에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동반 근무로 같이 그냥 이 야단을 맞고 나는 새벽에 나와 가지고 걔하고 교대를 했으니까 함바에 가서 아침을 먹고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과장이 자전거 타고 순찰을 돌다가 현장이 왜 아무도 없으니까 함바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거기서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야단을 먹고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송요찬 장군 온다고 해서 또 차들을 또 이렇게 쓰게 됐어. 근데 슬라이드 차들 거기는 차들을 슬라이드 비닐 거기에다가 차들을 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다 비춰가지고 저기 스크린에다가 그걸 하고 그러는데 OCI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 하나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내가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가 오면 더욱 좋지 해서 다시 복직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천제철에 내가 근무한 것은 3개월 3개월

면담자: 어떻게 보면 또 OCI로 스카웃되신 거네요.

면담 지원자: 그럼 어느 부서로 가신 거예요? 처음 그렇게 복직하신 게

구술자: 복직해가지고 이제 매립지 예를 들면 제방 같은 데 가고 이제 전체 중간 그 당시에는 이제 매립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립하는 것들 이제 관리하고 하느라고

면담자: 마무리 작업하러 가신 거네요.

구술자: 마무리는 아니고 마무리는 한참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걸 중간에 제방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폐수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폐수가 이제 정체해가지고선 맑은 물이 넘어가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시설이 갖춰져 있죠. 공장 가동하기 전까지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나머지 또 거기에 이제 청구목재라는 또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천으로 다 옮기려고 이회장이 그 저목장이라고 하는 데를 제방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에서 원목을 바로 집어넣게 하는 시설을 하는 그걸 하려고 청구목재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이제 쭉 했죠. 거기 있다가 이제 새인천 그때 이제 또 해가지고 최종명 사장이 그때 이제 공장장이었었지. 근데 그 새인천 유원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공장장이 대표이사였어요.

면담자: 그 당시에 OCI 차원에서 유원지를 조성을 한 거잖아요.

구술자: OCI 땅이니까

면담자: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어쨌거나 이 새인천 유원지를 만들어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

을 것 같아요. 이유가

구술자: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서 갈 데는 거는 송도밖에 없는데 송도는 그냥 미어터지고 그러니까 그 풀장을 갖다가 콘크리트 구조로 새롭게 축조를 해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면담자: 약간 송도 유원지 만큼의 그런 부지로 이제 여기 사람들이 놀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거네요. 그러면

구술자: 그렇게 이제 넓지는 않아도 한 한 3, 4천 평 정도

면담자: 그때 이제 제방 쌓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구술자: 그거 먼저 하면서 그냥 내가 저 공사가 없으면 유원지 일도 도와주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지. 그가 이제 다시 공장 기술부로 이제 들어가게 됐지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한불화학 건설 역시 본인이 참여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화학의 처음 소다회 생산이 이 200톤에서 300톤 증설했다가 배가 증설 600톤 증설 600톤 1일 생산 600톤 증설을 그걸 담당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한불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 가서 울산 인산칼슘 공장을 또 건설을 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이제 기술부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복귀해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게 된 상황은 내가 열거할 거 없고

면담자: 네 유원지 공사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그때 하셨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 주변에는 마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거기 공사한다는 거는 좀 알려졌을 것 같은데 그 공사 진행하는 중에 이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OCI 직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었어요

구술자: 이건 전혀 없었어요.

면담자: 전혀 없었어요. 반응 같은 거는 그냥 공사하는구나 했지 좀 궁금했어요. 요즘은 뭐 공사한다고 하면 저희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막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구술자: 그리고 방해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어.

면담자: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새인천 유원지 딱 문을 열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와가지고 막 돈을 포대자루에 담을 정도로 진짜 많이 왔다고 하셨었는데 실제 이제 선생님도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서 즐기셨었는지

구술자: 우리 표가 나오는데 안 가고

면담자: 직접 가시지는 않고 이제 직원들 표 나오는 걸로 친구들 나눠주고

구술자: 뭐 여타 그 일이 있었으니까 OCI하고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크게 열을 건 없고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저수지 물을 담아가지고 바닷물을 담아서 그게 정제가 되니까 그 정수된 물을 받아서 그 풀장으로 공급을 해서 쓰니까 그리고 계속 넘치게끔 해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송도물은 그냥 더러웠고 맨 똥물이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도 많이 오고들 그랬지.

면담 지원자: 저는 어릴 때 둘 다 가봤던 기억이 있거든

구술자: 그래요.

면담 지원자: 근데 송도 유원지는 물놀이를 한 거라기보다 거기는 이 가족끼리 가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려고 갔던 것 같고 기억에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근데 새인천은 진짜 물놀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 그 당시 옛날이었어도 수질이 그럼 좀 깨끗한 편이었을 것 같아요.

면담 지원자: 아니 그만큼 근데 송도 유원지에는 또 사람이 그만큼 또 많았어.

구술자: 많았어.

면담 지원자: 진짜 많았어요.

구술자: 콩나물

면담 지원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거기 다니다가 나중에 청학풀장 가서 청학풀장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진짜 훨씬 깨끗하고

구술자:그리고 나무 숲에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배경이 조금 다르지 시원하고 근데 새인천 유원지 같은 데는 허벌판이고 천막 아니면 이 가림막이 안 되니까 땡볕이고

면담자: 그래도 어쨌거나 그 당시 인천 3대 풀장이었겠네요.

구술자: 그렇지 새인천 풀장이

면담 지원자: 청학풀장은 꽤 이후로도 오랫동안 했어요. 네 저 결혼하고도 30대 중반까지

구술자: 개인 사유 시설로 해서 개인이 한 거니까 자기 투자 개인이 거기

면담 지원자: 그 전까지 있었을 거예요.

구술자: 청학 유치원 이렇게 관련 그런 일을 하면서 그 풀장을 한 거예요. 약간 돈이 있는 분이었어.

면담 지원자: 아니 거기가 유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단위로 저도 애들 우리 애들 어릴 때 거기 일부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음식과 불판을 가지고 가도 되는 곳이었어. 근데 그런 곳이 없잖아요. 없지 네 어디 큰 풀장 가면 다 못 갖고 가게 하니까 사 먹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애들은 물놀이하고 아빠들은 고기 구워서 한 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으니까 그렇지

면담자: 되게 뭔가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면담 지원자: 송도도 그렇고 새인천도 그렇고 청학도 그렇고 좋았어요.

6. 다양한 플랜트 건설 참여와 OCI 퇴사 (00:49:58~00:58:30)

구술자: 이제 배가 증설을 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한불화학을 또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롱프랑하고 합작을 해서 화이트카본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 거죠. 건설을 역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 가서 울산 가서 인산칼슘 공장을 건설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복귀해가지고 근무하다가 다른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가 건설로 진출하는 바람에 OCI를 그만두게 됐죠.

면담자: 그게 몇 년도셨어요?
구술자: 그게 지금 기억이야 78년도인가 77년도인가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선이 내가 OCI에 **관련된 공사를 한 업자가 픽업을 한 거야. 옛날에 픽업을 해서 계산동 구획 정리를 했어요. 그 경인고속도로 넘어서 넘어서부터 계양산 밑까지 구역 정리를 하는데 그 공사를 원천 건설 회사가 있고 내가 간 그 업체는 하청을 받았어.**
옥포 기업이라는 쪽에 지구를 갖다가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낙찰률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급받아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에서 철거 보상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A블록에서 B블록으로 토량을 이동을 할 걸 갖다가 철거가 안 되니까 A블록에서 저 F블록 먼 데로 가니까 운반비 코스트는 전체 블록의 평균 거리로 계산해 가지고 단가가 배당이 이렇게 돼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낙찰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되는 것보다 더 적자야.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도로 공사를 하러 갔죠.
도로 공사를 해가지고선 한 3km 구간을 맡아서 했는데 거기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원청에서 이제 하청을 해가지고 한 거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이 장영자 사건 때문에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너는 그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또 발행한 어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체 있던 장비들을 다 매각하고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지 나는 그러니까 거기 뭐 그렇게 파산될 정도가 됐는데 거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서 옷 벗고 이제 나온 거죠.

면담 지원자: 월급은 다 받으신 거예요.
구술자: 그 나왔는데 한 3개월 놀았나 놀았는데 OCI 건설회사가 하나 생겼다라고 그래서 그래 거기 사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 OCI에 있을 때 공장장이셨던 분이 사장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찾아 뵙더니 아니 이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있었냐고

하시며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창건설에서 건설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현풍 같은 곳에서 주공아파트도 짓고 공사를 여러 차례 했어요.
군산도 가고 이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그것도 또 사장이 손 놓게 되니까 OCI에서 또 사장을 내쫓는 바람에 나도 또 그 양반 쫓아서 그만 나와가지고 최 사장 서초동의 집을 단독주택 2층을 2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벽 두께가 이래 두 철근도 한 차 갖다가 그냥 다 썼으니까 엄청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2년에 걸쳐 지었으니까 뭐 하다가 사모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변경을 해서 또 부수고 다시 짓고 뭐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잘 지었어요. 역사는 그래 그렇게 하다가

면담 지원자: 직접 사실 집을 2년 걸려 지으셨단 뜻이에요. 하긴 그 시절에는 보면 자기 집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들이
구술자: 아니 집에 전부 이 목재 내부 내장을 목재를 갖다가 그냥 이 수입 원목 들어온 것을 이 바닷물에 담가놨다가 건조를 시켜가지고 썼으니까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참나무 오크를 갖다가 그냥 그래 가서 문짝도 전부 오크로 해가지고 문짝 두께가 2인치야 그래서 그 문을 닫다가 잘못 닫아서 그냥 손 이렇게 찌면 손가락 부러질 정도야 문 거 무거워서 그런 문을 그렇게 하고 또 이 2층으로 하는 계단을 갖다가 다 오크로다가 벽을 갖다가 다 쌓아가지고

면담자: 고급 빌라를 지으시구나
구술자: 조각가한테 시켜가지고 십장생으로 모형으로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계단 발판을 올라가고 거기를 갖다가 십장생 우리가 딱 조각을 해갖고 칠갑을 했어요.

면담 지원자: 거기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아까 보니까 아파트 사시던데
구술자: 내가 거기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내가 모셨던 최 사장
면담자: 대단하시다. 진짜.
구술자: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작고하고 없는데 그 집을 팔았더라고
면담자: 집값이 집 엄청 비싸게 파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내가 사진도 있는데 건설할 때가

7. 기술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천의 변천과 아쉬움 (00:58:31~01:16:00)

면담자: 저희 그때 본 사전 인터뷰 때도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었어서 어쨌거나 이제 허벌판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그 과정들을 진짜 젊은 시절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또 실제 제방을 쌓

는 일에도 몸소 또 이렇게 하셨던 과정을 겪으셨었는데 지금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지역이 또 탈바꿈해서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구술자: 허무에 내가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에 그냥 애착을 갖고 했던 것들을 다 망각이 돼버렸으니까 조금 허전하고

면담자: 젊은 날의 그 추억이

구술자: 허탈한 그런

면담자: 그럴 거 같아. 진짜

구술자: 그런 거 했을 적에는 상당히 보람도 가지고 있었어요. OCI에서도 사장 표창까지 받았지

면담자:맞아요. 그때 얘기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조금 상 받으셨던 이야기도

구술자: 그 당시는 한불화학하고 OCI의 배가 증설 유공자로 토목 건축 건설 유공자로 이제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장이 그대로 있는데 그 사단장 표창, 방파제 공사 유공자 표창.

면담자: 그러면 그때 그 토목 담당하시다가 이제 퇴사하실 때 직급은 뭐셨어요?

구술자: 그분 내가 그때 기사로 그냥 있었어 그 진급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손 놓게 된 원인도 있고 또 내 우위로 또 딴 사람은 픽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일요일 토요일 없이 그냥 밤늦도록 또 새벽에도 나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조금 아쉬운 거예요.

면담자: 서운한 마음도 드셨었어.

구술자: 그럼 그렇게 할 바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건설에 가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건설의 주업무니까 좀 더 발전이 있을 거 아닌가 해서 동아건설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울산건설 안 간 데 없어 그때 시험 벌써 합격을 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갔으면 해외 뭐 이렇게 다니고 다 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나 국내에서 그래도 계산동 같은 구역정리를 위해서 지금 구역장 그 대로를 갖다가 지금 지금 부평역에서 계산동 가는 큰 길 계산동 그 큰 길을 포장하고 다 했던 거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지. 차를 나고 지나갈 때는 가슴이 뭉클하며

지나온 시간 속에 환면이 스쳐지나갑니다.

면담자: 여기 내가 깔았다 약간 이런
면담 지원자: 우리 아파트 지으시는 분들도 그 얘기하신다고 저 아파트 내가 지었다
면담자: 약간 뿌듯함 그러니까 진짜 조금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구술자: 그래서 OCI가 철거되고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하고 허탈한 거예요.

면담자: 그래도 아직 제방은 그쪽은 남아 있잖아요.
구술자: 제방은 그 후자에 이제 인천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무슨 건설에서 와서 그걸 공사를 할 건가 화장하고
면담 지원자: 그 제방이 해안도로에 있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사동 유수지 그쪽 그 낙섬에서 그 유수지 가는 그게 쭉 이어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진짜 규모가 또 크잖아요. 또 되게 넓고 진짜 이렇게 뭔가 이 지역의 큰 이슈였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인천에 큰 기업이라고 하고 대한중공업이라고 해서 하고 인천제철 한국유리 그렇게밖에 큰 기업이 없었죠. OCI가 들어오니까 큰 기업 대기업이 들어오고

면담자: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열거를 해드렸지만은 그것이 인천의 산 역사하고 또 과거에 지금 현재 형성된 것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 해안도로 내부에 그 도로가 80만 평이라는 그 땅이 인천시의 면적으로도 확보가 된 그런 역할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본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시금 되새기는 마음이 있어서 또 조금은 울컥한 것도

면담자: 저는 그 시대를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이 되게 생생하게 들려주셔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구술자: 조개고개는 거기는 어업을 주로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한 10리 20리 나갈 거야 나가서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물을 또 이렇게 쳐가지고 또 고기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

고 그러면 고기도 또 사러 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좋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았고 생업을 그렇게 저기 고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 OCI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OCI에 근무를 하고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OCI에서 한 거지

면담자: 생활 모습이 바뀌었네요. 공장이 들어오다가

면담 지원자 : 공장 일꾼이 된

구술자: 근데 다만 지금 내가 아쉬운 거는 인천시에도 우리가 지금 내수 그러니까 이 지역 내부에도 여기도 그렇고 도로에다가 비가 홍수가 쏟아지는 비가 오면은 맨홀 뚜껑이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면담자: 배수가 안 돼서

구술자: 배수가 내가 그 제방 막을 적에는 제방하고 그 바닥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거의 10m 이상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3m 5m밖에 없어 전부 그쪽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준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류가 이렇게 막히니까 상류는

면담 지원자: 물이 거꾸로 오는 거지

면담자: 역류하는 거지

구술자: 침전물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배수 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송림역 있는 쪽에 그쪽에 보면 배수 암거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이 단면이 예를 들어서 5m에 5m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3m 이 단면은 그대로 있고 5m에서 2m 정도는 이게 침전물이 그러니까 그게 나갈 물 나갈 단면적이 좁아졌으니까 이렇게 저거 있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물이 나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맨홀 같은 데서 이게 솟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연안부두 매립을 한 거 이걸 하면서 배수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 이 나갈 하류 쪽에 이 배수 시설을

면담 지원자: 용량을 키웠어야 되네

구술자: 해야 되는데 그건 준설은 안 하고 그냥 놔둬 가지고 우리 재방한 거고 높이가 10m가 지금 3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쌓이는 거냐고

면담 지원자: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극한 기후 때문에 폭우가 내릴 확률도 더

구술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이 물 그러다 보니까 그 물 나온 거를 갖다가 펌프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

면담자: 근본적인 거 해결을 안 하고

구술자: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 올 때는 그냥 물 펌프로 퍼내는 거 퍼내는 거로 그러니 그게 답답해 가지고

면담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해결하면은 되는 거를 안 하고

구술자: 그렇지 일제 시대 때 해놓은 거 암거 박스가 그게 그 단면으로 했으면 그 슬로프대로 나갈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냥 땅 확보로 매립하기에만 급급했지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저 인하대병원 있는 그 앞에 다 낙섬 쪽으로 오는 데가 다 배수로로 있었거든. 그래서 낙섬 쪽에도 이제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이 있고 거기서 염전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놨었어. 그래서 저수지 물을 담아놔야 염수로다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죽은 애들도 많았어.

면담 지원자: 거기서 왜요?

구술자: 수영하다가 물이 그만큼 깊었어요.

면담 지원자: 나는 거기까지 가서 안 놀았어. 너무 멀고

구술자: 거기 가는 게 한 2km 정도 헤비했거든. 한참을

면담 지원자: 저 어릴 때 하인천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살 때까지 그러니까 50년 전에 아버지가 한국화장품 다니셔 가지고 한국화장품 그래서 이제 새인천도 이제 친구들 중에 그 표 있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부모님 계시니까 같이 어울려 다녔었죠. 송도도 가고 새인천도 가고 청학풀장도 가고

구술자: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이 자꾸 침수되고 이렇게 내물이 터지고 하는 게 그런 것이 기술자로서 내가 이렇게 판단할 적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해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건데 참 그런 게 아쉬운

면담자: 그러니까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보이시니까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술자: 내가 제방을 막았을 적에 둑을 쌓았을 적에는 높이 차이가 이 바닥 바닥 쪽에 볼을 하고 제방 높이하고 차이가 10여 m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3, 4m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면담 지원자: 그게 펄이 쌓인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해수면도 높아졌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구술자: 아니 해수면 높은 거는 물 사리 때 조금 문제고 만조되기 이전에는 자연 수로로도 그렇게 나갔어야지 만조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면담 지원자: 그러면 시의회 같은 거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하셔서

구술자: 건의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박사도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무시하는 게 많아

면담 지원자: 혹시 직장에서 진급 못 하신 것 중에 그것도 원인일 수도 있겠다. 아빠도 회사 다니실 때 보면 아빠도 되게 한국화장품을 거의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도 아버지도 막 진급이 안 되신 게 아무래도 학력이 좀 모자라서 위에 좀 직급이 있는 사

람이 좀

구술자: 고등학교 출신자는 일단 공원으로다가 취급을 해서 공원으로 그러니까 출근해서 이렇게 카드를 찍고 사원들은 그냥 출근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이제 카드를 찍었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험을 봤어. 이회림 회장한테 시험을 봤어요. 진급 시험을 지금 시험을 봤는데 한불화학 공사할 적에 이제 이회림 회장이 와가지고 자네 나 이리 좀 와 봐 현장에 철근 쪼가리 철 H빔 쪼가리 뭐 해가지고 너저분한 게 있는데 그 때는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큰 드럼통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일과 후에 전부 수거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놔라 짓을 알았습니다. 딱 해서 그냥 그걸 해놨더니 바로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급 시험을 보는데 자네는 시험을 보는 거야.
같이 사원으로 그냥 진급이 된 거지 공원에서

면담자: 능력으로 인정받으신 거네요. 진짜

구술자: 노력을 해야지 맞아요. 노력하고 자신은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그만한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노력과 그런 결과를 가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회림 회장은 그 당시에 보면은 말이죠. 회식을 하러 가잖아. 가면 공장장 간부들 받아서 먹고 나면 소주를 먹으면 뭐 많이 먹어 한두 잔 먹으면 그 병 남았잖아. 그러면 소주값을 두 잔 값만 내라는 거야. 왜 그걸 돈 다 내줬냐고 그렇게 아주 대단해. 그리고 개성 사람이거든요. 나도 고향이 개성이지만 개성 상인 개성 상인이야 맞아요. 개성 상인으로서 보따리 짐 채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했던 그런

면담 지원자: 개성에서 언제 내려오셨어요?

구술자: 난 6·25 1·4후퇴 때

면담 지원자: 내려오시고 안 올라가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 난 그때 어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업혀서 나왔으니까**

면담자: 질문하실

면담 지원자: 그러면 인천에서 내 살

구술자: 본 적이 인천 숭의동 417번지니까 오지요. 이제 인천 사람이지 뭐

면담 지원자: 이 인천 숭의동 변화하는 게 옛날부터 진짜 파노라마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요즘 변하니까

면담자: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구술자: 거기 현대에서 그 아파트 지은 거 거기 그 부근에서 살았거든. 근데 거기 집에 옛날에도 집 짓고 골목길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벌써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을

인수한 사람한테 그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공유 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1,100만 원인가 받았어.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 100만 원씩 다 나눠주었지.